

Post modern-Feminism의 문화 현상과 패션

손 미 희

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 겸임교수

The Cultural Phenomena of the Post modern-Feminism and Contemporary Fashion

Mi-Hee Sho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Pai-Chai university, Concurrent professor

ABSTRACT

The bisexuality, deconstructivity, and diversity that are great characteristics on the contemporary fashion are showed in the fashion collec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influence of these characteristics made by the post modern-feminism fashion through the cultural pattern analysis. The post modern-feminism was analyzed by dividing the cultural pattern into 1) the deconstructivity of androcentrism, 2) the rejection of main current fashion, 3) the coexistence of double-sided value, and 4) the open-minded thought of gender.

1) In the deconstructivity of androcentrism - This characteristic was presented in the costume design that breaks the basic form of the line, color, and quality of the material showing in men's clothes.

2) By rejecting main current fashion - Subculture style appeared in main current fashion, the boundary of main and anti-main current fashion was vagued, and the phenomena that the identity of subgroup was weakened were showed.

3) In the coexistence of double-sided value - This characteristic was presented in the cross-dressing fashion that cut away women's slender part and men's rough part.

4) In the open-minded thought of gender - This tendency was reached an extreme from excessive exposure to design which gives the sexual stimulus.

This paper is expected to be helpful to understand the contemporary fashion by treating the cultural category associated with post-modern feminism in relation to contemporary fashion and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21 century fashion.

Key Word : 포스트모던-페미니즘(post-modern feminism), 패션(fashion), 페미니즘(feminism), 양면성(duality), 해체성(deconstructivity)

I. 서론

패션은 한시대의 문화이며 역사이다.

패션은 예술형태이며 기호학적이고 사회적 시스템이다.¹⁾ 패션의 평론가들은 패션을 사람들이 서로 끊임없이 상호 교환하는 문화적 메시지를 가진 언어로 분석하고 있다.²⁾ 특히 지금까지 패션의 주역은 여성이었으며 여성은 사회, 문화적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여성의 권리와 위치가 결정되어 왔다. 따라서 여성들은 제2의 피부라고 하는 패션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 여성 자신의 위치를 각각하고 권리를 주장해온 페미니즘(feminism)은 여성적이고 장식적인 것은 무엇이든 열등한 것으로 분류하였던 19세기에서 20세기 모더니즘까지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해 반발하고 주목받지 못했던 대상들에게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페미니즘은 1970년대 본격화되어 절정을 이루고 패션에는 팬츠 스타일과 유니섹스모드(unisex mode)라는 남녀평등의 실현을 패션에 적극적으로 도입시켰다.³⁾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은 곧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개막을 알렸다. 이후 페미니즘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제3국의 문화양식과 저항문화, 타자⁴⁾ 등 주류문화가 되지 못하는 억압된 문화에 관심을 돌리는 점에서 관심을 공유하게 된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더욱 활발해졌고 패션은 다양화, 개성화, 탈진통화, 규범의 해체 등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패션의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로 여성과 남성의 스타일에 양성성, 해체성의 경향이 농후했다. 무엇보다도 비주류문화에 대한 관심은 일정한 틀을 형성하는 패션을 거부하며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해온 안티패션(anti-fashion)에 관심을 돌려 다양성을 가시화 했다. 또한 세계 각 지역에서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는 성의 자유로운 교제 즉 동성애(homosexuality)의 인정이라는 상황이 말해 주듯이 이제 패션은 21세기를 내다보는 시점에서 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페미니즘 패션의 영향력을 연구한 논문들로 콕미영⁵⁾, 강정화⁶⁾, 전해정⁷⁾, 채금석⁸⁾ 등이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포스트모던-페미니즘(post modern-feminism)에 관련된 연구는 미비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대부분 여성복에 표현된 페미니즘 현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화되고 다극화된 포스트모던-페미니즘(post modern-feminism)의 사조 하에서 새롭게 성장하고 활기를 띠게 된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의 영향력이 여성복뿐만 아니라 남성복 패션에서도 본격화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문화적 유형 분석을 통하여 패션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II 장에서는 문화의 개념과 페미니즘,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의 이론적 배경으로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의 차이점을 다루고, III 장에서는 주로 1990년대에 발행된 패션잡지와 문

1) Valerie Steel, Paris Fashion; Feminism and Fashion, N.Y, 1988, p.245

2) Leslie W. Rabine, "A Woman Two Bodies: Fashion Magazines, Consumerism & Feminism" edited by Ferris, Benstock On Fashion, New Jersey; Rutgers Univ. Press, 1994. p.59

3) 손미희, "Feminism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p.2-3

4) 타자(other)는 배제되고, 기피되고, 쫓겨나고, 불리한 조건하에 놓이고, 특전이 없고, 거부당하고, 부름받지 않으며, 버림받고 전이되고, 주변부화되는 것으로 "Simone de Beauvoir"의 저서 <the second sex, 1953>에서 발전시킨 중요한 개념이다 - Maggie Humm, [심정순, 영경숙(역)], 「페미니즘이론사전」, 삼신각, 1995, p.312.

5) 콕미영, "여성해방운동이 서양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1850-1950)", 중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6) 강정화, "현대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7) 전해정, "페미니즘과 패션", 서울여대 연구논총, 1994.

8) 채금석, "Feminism이 서양여성복식에 미친 영향", 국립창원대 교수논문집, 1993.

현, 자료(인터넷자료포함)등을 통하여 페미니즘과 관련된 문화유형을 1. 남성중심주의의 해체 2. 주류 패션에 대한 거부 3. 양면가치의 공존 4. 성의 개방적 사고로 나누어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의 개념

Raymond William은 문화에 대해 가장 난해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문화는 지적, 정신적, 심미적인 개발의 일반적 과정이며, 한 인간이나 시대 또는 집단의 특정생활방식을 가리키고, 지적인 작품이나 실천행위, 특히 예술적인 활동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된다고 했다.⁹⁾ 와츠지는 문화란 역사와 풍토가 만들어 낸 것이며, 그것을 만들어 낸 주체는 인간이고, 인간은 개인이로나 또는 공동사회를 영위하면서, 역사라고 하는 시간과 풍토라고 하는 공간에 대하여 동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 낸 것¹⁰⁾이라고 했다. 따라서 문화는 살아있는 생활방식이며 또는 문화적 실천행위라고 부르고 있다.

또 Michele Barrett는 문화정치는 페미니즘에 있어 의미에 대한 투쟁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치 여성이 소비하는 대중문화에 대한 논의는 성(gender)적이고 특별한 반면, 남성이 소비하는 것은 성적 특징이 없어 보편적이라는 듯이 인식되었다.¹¹⁾

대중문화는 흔히 고급문화라고 결정된 것 이외의 문화를 가리키고 있다. 즉 우리 사회에서 열등함을 내포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

즘 문화라는 것이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분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실제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이제 모든 문화가 포스트모더니즘 문화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은 궁극적으로 엘리트 중산층 또는 보헤미안 하위문화와도 거리가 있는 종래의 이분법이 빛은 근본적인 모순을 해소시키고 한 문화권 내의 이질적 요소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역학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하위문화의 저항적인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은 하위문화가 아방가르드의 소스가 되는 것은 국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결국에는 시장경제의 원리 하에 움직이는 상업적인 문화와 결부된다. 따라서 모든 문화를 상업 문화라고 말하고 상업과 문화에 상호침투된 예로 꼽는 것은 루티아노 파바로티의 음반판매 1, 2위를 차지한 사실과 명백하게 대중적 인기는 문화간의 뚜렷한 구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문화간의 상호교류는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거부하며 성을 주제로 삼았던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모나리자 수염에서처럼 여성과 신체에 대한 고유한 정체성 혼란을 초래하며 다양한 문화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변화는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지난 80년대에 이래로 가장 중요한 두개의 문화 이념으로 부각시켰다.¹²⁾

페미니스트인 주디스 에스텔레어(Judith Astellare)는 페미니즘에 관하여 반항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소간 조직적이고 여성의 열등성을 만들어낸 사회 조직에 대해 반대¹³⁾하며, 페미니즘의 의미는 각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9) John Storey, (박도 역), 문화 연구와 문화이론, 현실문화 연구, 1994, p.13

10) 衫本正年(문광희 역), 동양복장사논고-고대편, 경춘사, 1995, pp11-12

11) Michele Barrett, "feminism and the definition of culcultural politics", Feminism, Culture and Politics, London: Lawrence& Wishart, 1982, p.37

12) Nancy Fraser. Linda J-Nicholson, "Feminism/Postmodernism", 1990, p.19.

13) Sheila Rowbotham, Women in movement: Feminism and social action, Routledge N.Y, 1992, p.6.993.

단지 남성에 대한 여성의 특별한 억압만을 조명한 국한적인 개념에서 현재는 성(gender)과 관련이 없는 일상과 사회전반을 통제하고 있던 가치나 규범, 문화적인 면에서 저항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시대의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은 정치적인 운동을 초월하여 하나의 문화운동으로 파급되었다. 철학, 기호학, 정신분석학을 수렴할 뿐 아니라 여성 문학, 여성주의 미술, 여성주의 연극, 여성주의 영화에 두루 편재되어 있으며 특히 패션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2. Feminism과 패션

수많은“-주의(ism)”와는 다르게 feminism은 어떤 하나의 이론적인 공식에서 개념적인 기초를 뽑아내지 못한다. 이는 모든 시대에서 모든 여성들에게 적용되는 페미니즘이라는 특정한 추상적인 정의는 존재 할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페미니즘이라는 정의는 변화 될 수 있고 변화하고 있다. 왜냐하면 페미니즘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확실한 현실성과 의식, 인식, 행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⁴⁾

Feminism의 시작은 17세기에 개화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봉건사회의 압제에 도전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도 사회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여성해방운동은 프랑스혁명으로 본격화되었고 이때 출판된 영국 출생 메리 월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1759-1797)의 <여권옹호론 :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1792)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최초로 완벽하게 표현하였고¹⁵⁾ 현대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기

초가 되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는 사상이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중심체제와 성차별주의를 인식케 하였다. 이때 많은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의상 개혁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최초의 의상 개혁자는 엘리자베스 밀러(Elizabeth Smith Miller)였으며 Bloomer에 의해 무릎정도 길이의 느슨한 튜닉과 그 밑에는 발목에 주름이 잡힌 터키풍(turkish)의 헐렁하고 볼록한 바지로 구성된 Bloomer스타일이 소개되었다.¹⁶⁾ Bloomer 의상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상당히 획기적인 시도가 아닐수 없었고, 여성들에게 편리하고 기능적인 의상을 제안했던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으며 남자와 동등하게 여성도 바지를 입고 활동할 수 있다는 의식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최초의 국제 페미니즘 대회가 열린 이후 여성들이 지위가 상승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세계1,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여성의 사회진출은 현저하게 늘어났고 여성들은 더욱 편리한 의상을 입기 시작했다. 1930년대와 1950년대의 경제적인 대공황은 실업자의 증가를 가져왔고 여성들의 직업상실로 연결되어 여성의 가정복귀가 이루어져 여권운동의 후퇴가 불가피하였다.¹⁷⁾

가부장제의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고 남성중심의 문화에 도전하여 여성의 특성을 탐구하는 현대적 의미의 페미니즘이 출현한 것은 1970년대 전후의 미국을 뒤흔들었던 저항 운동에서 시작되었다.¹⁸⁾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항거했던 흑인 운동, 학생 운동, 전쟁을 반대하고 자유를 주창했던 청년 운동, 제3세계의 출현 등 민권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여성해방의 이론과 실천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¹⁹⁾ 이후의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자유주

14) Who's afraid of feminism, Women in action, 1995, p.40

15) 앞의 책, Maggie Humm, p.263.

16) Robert E. Riegel, "Women's clothes and women's rights", Dartmouth College, 1989, p.391.

17) Susan Alice Watkins, [이소영(역)], 「페미니즘」, 이두, 1995, pp.93-97.

18) 김홍희, 여성, 그 다름과 힘, 삼신각, 1994, p.185

19) 도규희, 권미정, 「복식에 나타난 페미니즘과 에로티시즘」, 경북산업대논문집, 1992, p.415.

의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한 생존권 및 평등권의 주장보다는 이들은 여성들이 차별과 억압을 당하는 입장은 곳곳에 두루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여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려면 가정 역할에 관련된 자녀 출산, 자녀 양육, 성 관계 그리고 경제 생산에 참여하는 직업적 역할 등 네 가지의 상호 연관된 구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²⁰⁾ 미국작가이며 행동주의자인 밀레트 케이트(Millett Kate)는 <성의 정치학: Sexual Politics (1970)>에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부권제 사회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 기질, 역할을 분석하고 여성의 인간화를 위하여 성의 혁명²¹⁾을 주장하였다.

80년대를 지나면서 페미니즘은 포스트모더니즘과 제휴하며 지배문화(가부장적)를 타파하기 위한 문명 비판적 공모가 깔려있었다. 이성 중심적 담론과 재현을 의심하는 후기구조주의 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추정들이 가부장제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페미니스트의 신념과 일치한 것이다. 과거의 페미니즘이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치적인 운동이었다면, 현재의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은 성차별문화를 조성하는 부계사회의 구조를 검증하고 해체하는 주지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3. Post modern-Feminism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은 후기 페미니즘이라도 하며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페미니스트인 씩수스(H. Cixous), 이리가레이(L. Irigaray), 크리스테

바(J. Kristeva)의 철학적인 관점이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와 자크 랑강(Jacques Lacan)과 같은 포스트모던 철학자들과 인식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²²⁾

많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뿌리가 시몬느 드 보브와르(Simone de Beauvoir)²³⁾의 저서 <제2의 성: The Second Sex(1953)>에서 보여진다.²⁴⁾ 여기에서 Beauvoir는 여성은 타자이며 타자성은 억압, 열등감과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억압당한 열등한 상황 이상의 것이라고 하였다. 오히려 타자성은 관대함, 다원성, 다양성, 그리고 차이를 허용하는 존재 방식, 사고 방식, 표현 방식이라는 것이다. 즉 Beauvoir는 타자성에 대한 예찬을 통해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을 설명하였다. 타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출발된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사상을 수용한 오늘날의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은 후이센의 제2단계 포스트구조주의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아류로써 구조적 모순과 타자로서의 여성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페미니즘의 새 시대를 열었다.²⁵⁾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을 여성만의 해방운동으로부터 남녀 공동의 인간 해방, 주체성의 해방운동으로 전환해 나간다. 이 개혁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인간적 수준으로 존중한다는 가치 중립적 입장의 수립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⁶⁾

따라서 최근에 페미니즘은 단일한 남성중심의 논리적 체계를 부정하고 이성 중심적 합리주의에 반

20) 김영경, 한국 여성 예인의 삶과 예술에 나타난 페미니즘 연구, 한양여전 교수논문집 Vol 18, 1995, p.127.

21) 성의 혁명은 일반적으로 남성 및 여성들의 성행위에 대한 사회적 금기를 완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개인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성개념에 근거해서 사회적으로 구조된 성에 억압당하지 않을때, 비로소 성의 자유는 일관성 있는 페미니즘 정치학안에 자리잡게 된다고 주장한다. Maggie Humm, p.162.

22) Rosemarie Tong, [이소영(역)], 「페미니즘사상」, 한신문화사, 1995, p.342.

23) John Charvet, *Feminism*, J.M.Dent&Sons Ltd, 1982, p.98

24) 이소영, 정정호(공편),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한신문화사, 1992, p.344.

25) 월간미술, 1994. 8월, p.168.

26) 전혜정, 앞의 논문, p.495.

대하여 다양한 주체들간의 수평적 관계의 회복이라는 민주적 원리에 기초한 포스트모던 상황 속의 다원주의적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다원주의는 바로 모든 양식과 주제에 대하여 열려진 태도이며, 단독의 스타일을 거부하는 절충주의는 다양한 요소를 한 단위 안에 혼합하는 양식의 의미하여 이종교배의 복합적 스타일이라 할 수 있고²⁷⁾ 역사적 제 단계들이 보여준 단면들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²⁸⁾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후기 산업사회의 정신적인 상황에 부응하는 해체주의라는 새로운 영역을 포함시키고 있다.

해체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남녀 이분법을 해체시킴으로써 성의 차이를 무효화하고 이분법의 대립항을 이루는 각 항목의 정체성을 거부함으로써 자연적인 성(sex)이 아닌 문화 사회적인 성(gender)으로 시선을 돌려 사회적으로 구축되고 역사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들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를

수용한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의 사상을 가능하게 하고 타자에 대한 여성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페미니즘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타자성은 배제하고, 기피하고, 쫓겨나고, 불리한 조건하에 놓이고 특전이 없고, 거부당하고, 부름받지 않으며, 버림받고, 전이되며 주변부화 되는 것들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해체주의의 주요 주제이다.²⁹⁾ 해체주의자들은 자아 정체성과 진리는 없다는 생각과 언어에서 “여성적인”것을 배제하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비록 Lacan과 Derrida가 여성의 성활동에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시도하였지만 배제된 “여성적”인 것에 대한 그들의 서로 다른 진술들은 포스트모던-페미니즘에 상당히 공헌하였다. 해체주의 페미니스트들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써의 남녀의 이분법을 성차이의 무효화와 남녀의 대립항적인 항목들을 거부함으로써 생물학적인 성(sex)이 아닌 문화와 사회적인 성(gender)로 시선을 돌림으로써 여성만의 해방이 아닌 남녀의 공동 해방이라는 휴머니티(humanity)를 강조하고 있다.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의 차이점

	페미니즘	포스트모던-페미니즘
시 작	17세기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페미니스트	Mary Wollstonecraft John Stuart Mill 등	H.Cixous, L.Irigaray, J. Kristeva
특 징	여성의 민주권 및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법적 개혁의 정치적인 운동, 가부장제를 여성억압의 최대원인이며 생물학적 특수성에 관심을 가짐	하나의 고정된 여성이론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성차별문화를 조성하는 부계사회의 구조를 검증하고 해체하는 주지적인 활동
내 용	교육과 고용의 권리, 사유재산의 권리, 투표권, 의회권, 출산권 등	남성-여성의 양극성 및 고정관념을 거부, 성차별을 종식시키며, 공정하고 동등한 사회, 남녀 공동의 인간해방
사상적 기초	자유주의페미니즘 급진적페미니즘 정신분석학적페미니즘 등	포스트모던-페미니즘 실존적페미니즘 해체주의

27) 김홍균,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諸 特性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56.

28) 김민수, 「모던 디자인 비평」, 안그라픽스, 1994, p.142.

29) Rosemarie Tong, 앞의 책, p.345.

Ⅲ. Post modern-Feminism의 문화현상과 패션

패션은 상호교환의 메시지이며 사회적 의미의 전달자로서 문화의 “겉모양”이다. 또한 패션의 기호 체계는 헤게모닉문화³⁰⁾내에서 저항과 함류라는 두 용어 사이에서 처럼 포스트모던 문화적인 논리의 관점을 수정하면서 그것을 만드는 중요한 힘에 의해 작용되어지고 있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전통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와 성차별 자체보다는 그 차이를 만드는 사회 문화적 배경을 중시하였다.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남녀 모두의 성에 대한 해방인 양성성의 인간상은 포스트모던-페미니즘에 있어 적극적인 표현의 대상이며 실천의 목표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상은 패션을 통해 그 시대의 문화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의 상황 아래 보여지고있는 문화적인 현상들을 중심으로 패션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남성중심주의의 해체

봉건사회에서는 기호체계(sign system)보다 다른 기호적인 체계(symbolic system)로서 옷은 상징적 대상물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옷은 계급과 성 제도에서 입는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었다. 즉 여성 패션은 남성의 시선으로부터,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로부터, 육체적이고 경제적 활동과 빅토리아 여성다움의 굴레에서 속박과 해방을 표현하게 했다.

Peal Binder에 따르면 패션은 지배사회구조에서 계급지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구성하며 또한 Laver는 남성의 의복은 계급을 상징적으로 표현하

도록 계급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했다.³¹⁾ 그러나 자본주의의 출현과 더불어 노동자들은 부유한 부르주아처럼 옷을 입을 수 있었으며, 옷은 위치의 등급에서 고정된 입장을 나타내는 대신에 대상물의 부재 내에서 어떤 역할을 의미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옷은 입는 사람의 사회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폭로하거나 감추었다. 패션에 있어 내재된 이러한 모호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구조화 연결되어 있고 성(gender)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자본주의의 출현은 여성적인 노동계급을 형성하는 반면, 중산층 여성들이 그들의 자아표현을 위해 패션을 채택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페미니스트들은 패션에 관한 주제가 여성해방운동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혼란과 논쟁에 있어 남성을 중요하지만 남성처럼 옷을 입은 여성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한 규명하기 어려운(irritation)문제 중에 하나에 봉착하게 했다.

더욱이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단지 인간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방식에 대항하여 수많은 시위를 해왔다.³²⁾ 성은 주위 환경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방식의 총체로서 사회가 정의하는 성 규범은 대부분 남녀간의 신체적 차이를 기반으로 남성의 지배를 인정해왔다. 특히 남성을 문화, 이성, 정신으로 여성을 자연, 감성, 신체와 동일시하는 이분법은 자연적으로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고 저급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위계화시키게 되었으며 이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지배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³³⁾

페미니스트인 Millett Kate는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관행에 관해 여성의 억압의 뿌리가 가부장제의 성/성별 체계에 깊이 묻혀 있고 남성-여성 관계는 특히 모든 권력관계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성은

30) 지배하는 패권(주도권)을 잡은문화

31)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복식문화, 교문사, 1996, p.23

32) Valerie Steel, 앞의 책, p.229.

33) Glennon, Lynda M(이수자역), Women and Dualism, 이화여대출판부, 1990, p.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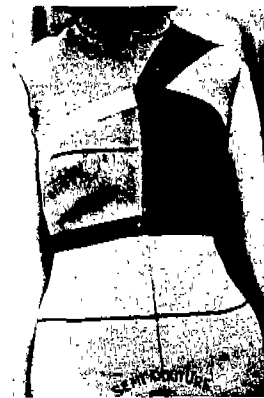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남성들의 공격, 사적 세계의 통제가 가부장제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해방되고자 한다면 가부장제 하에서 구성된 성별-특히 성적지위, 역할, 그리고 기질-을 제거 시켜야만 하고 양성의 인간을 구성하는 것은 가장 긍정적인 남성적 성질과 여성적 성질을 밝혀내고 그것을 조화시키는 것이라 했다.

이러한 페미니스트들의 성별 불평등에 관한 움직임은 80년대에 와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남녀의 이질론을 강조하며 여성이 주체가 된 여성 중심적 사고로써 남녀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가치 있는 것으로 정당화하여 의상에서 여성성의 장점을 도입하는 의상을 착용하게 되고 여성들의 신체를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표현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창조성과 제어의 객체로써, 자신의 사회력의 도구로써, 그리고 동시에 성(gender)이 아직도 아주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권력구조를 갖는 사회에서 남성의 폭력과 억압의 목표물로서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이 주도해 온 사회와 문화를 거부하고 여성의 주도하는 사회를 만들 때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생기며 남성적 담론과 지배적 양식을 해체하는 것이라 했다. 해체의 전략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문제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담론, 재현, 이념, 언어를 여성의 억압의 요소로 보고 특히 언어는 음운중심주의(phonocentrism), 이성중심주의(logocentrism), 남근중심주의(phallogentrism)를 해체하는 기술(writing), 의식보다는 무의식, 시각보다는 촉각이 우선하는 가치 전도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남근중심의 특권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³⁴⁾ 이러한 이론은 해체론의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철학적관점인 전통

적인 형이상학의 이원론적 개념의 존재론적 고유성을 재 구축하는 것에 기인된다.³⁵⁾

즉 해체론을 남녀관계로 볼 때 남자와 여자라는 이분법은 남자 속의 여자, 여자 속의 남자라는 내적 차이로 해체될 수 있다. 그리고 해체론에서는 하나의 의미는 반대의 의미를 억압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논리란 있을 수 없고 끊임없이 와해되며 자리바꿈을 하는 것이 해체론의 특징이라 했다. 따라서 여성의 성적 차이 자체보다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서로 다른 것으로부터 특징 지워진다고 보는 페미니즘은 패션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Derrida의 상호 텍스트성(intertextuality)³⁶⁾은 의상에서 남성 대 여성의 성 역할 고정 관념, 아이템, 착장 방식, 소재등을 해체시키고, 상호텍스트를 병행 인용함으로써, 의상에서 소외되었던 제3의 부수적인 것들을 수용하는 열린 사고로 포용한다고 본다.

페미니즘적 해체 패션은 디자인의 틀에 얽매여 사소한 요소만을 변화시켜 새로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파격적인 독창성을 찾는 것이다. <사진 1>과 같이 패



<사진 1> Martin Margiela, Bazaar, (1997.1), p.177

34) 김홍희, 앞의 책, p.194

35) 김상환, 「해체론 시대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1996. p.164

36)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Cristeva)에 의해 소개된 불란서 용어이다. Cristeva는 "시적 언어의 혁명"(La Revolution du Language Poetique)에서 기호체계가 발음 및 의미 위치상의 새로운 변별성을 가진 다른체제로 자리 바꿈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린다. 어떤 의미화 작업도 다양한 의미화 체계가 그러한 자리바꿈을 하는 하나의 영역(힘을 가진 선들이 공간을 가로지른다는 의미에서)이 된다. 상호텍스트성은 여성 저술의 공통적 특징이다.

션의 해체주의자라고 불리는 Martin Maegela는 확실성을 배제하고 성적인 특질마저 해체시킴으로써 강렬한 여성의 미적 비판정신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미완성으로 만들어진 옷은 해체주의 정신이 깃들어 있기도 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 미래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따라서 미래를 현실화한 미래 지향적 패션으로 남성적, 여성적이라는 고정된 틀을 털어버림으로써 가능해 진다고 본다. 이러한 해체성은 성의 개념을 초월시킴으로써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동등한 성의 균형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최근 패션에서 여성복에서 남성적인 요소를 찾거나 남성복에서 여성적인 요소를 찾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진 2> <사진 3>에서처럼 여



<사진 2> W&L.T, Vogue(1997.6), p.106



<사진 3> Katherine Hamnett, Vogue(1997.11), p.124

자와 동일시되었던 치마를 입고 긴머리에 액세서리로 치장한 남자들의 모습에서 가부장적인 권위는 찾아볼 수 없는 듯하다. 여성복에서나 사용되던 실루엣, 컬러, 프린트, 디테일등이 남성복에도 과감하게 보여지고 있다.

또한 Comme des Garcons'99 S/S Menswear Collection <사진 4>에서는 기존의 남성복에서 보여지는 선과 색채 재질의 기본 공식을 깨는 듯한 디자인이 선보였다. 남성복의 섬세한 디테일의 사용, 원피스와 같은 셔츠는 중성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한 각각의 성적 특질에서 양성적인 인간을 구성하는 것은 가장 긍정적인 남성적 성질과 여성적 성질들을 밝혀내고 그것을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사진 4> Comme des Garcons
99 S/S Menswear Collection

따라서 과거의 패션은 남성의 권위와 권력을 표현하였지만 포스트모던-페미니즘하의 남성패션은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틀을 해체하며 오히려 여성적인 특질을 받아들이는 남성중심주의의 해체를 표현하고 있다.

2. 주류패션에 대한 거부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의 뿌리는 Simone de Beauvoir의 <제2의 성>에서 발견되고 있다. 보브와르는 여기

에서 여성은 결코 스스로를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길들여지고 사회나 존재상황속에서 “타자”로만 취급되기 때문에 부동의 자연성(즉자적 상태, 무의지적 상태)위에 행사되는 남성의 재배권에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³⁷⁾ 따라서 타자성(여성성)의 상황은 여성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지배문화가 그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여성을 포함한)에게 부과하고자 하는 규범, 가치, 실행들을 비판할수 있게 한다. 이러한 페미니즘적 이론은 주류(mainstream)의 중립적인 이데올로기가 포스트모더니즘시대에 더 이상 당위성과 구심점을 고수하기 어려워지고 따라서 그 동안 억압되어왔던 비주류 즉 대응문화(counter-culture)에 관심이 집약되고 있는³⁸⁾ 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적인 다원주의를 들을 수 있는데, 1940년대 처음 등장한 이태 서구의 사회에서 가시화하기 시작한 하위문화 집단은 현대사회에서 지배문화와 공존하는 현상을 보이며 다양한 문화의 복합성을 가지고 주류유행에 대한 안티-패션(anti-fashion)을 형성함으로써 하위문화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하위문화 스타일이 주류 패션에 등장함으로써 양자간의 경계가 모호하게 되고 더 이상 주류패션은 하위 문화에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위문화 집단의 저항적인 면모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서 하위문화가 동떨어진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패션이 반복적으로 하위문화에 시선을 돌리는 과정에 주류화 비주류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현상을 낳게되며 한편으로는 하위집단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³⁹⁾ 페미니즘과 하위문화에 대한 패션의 시각의 공통점은 억압된 문화라는 위치에서의

같은 입장을 표명하며 기존 사회의 가치등 문화적인 일면에 반항을 보이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의 페미니스트들은 패션에 대한 관심은 잘못된 자의식의 형태이며 그러나 패션이 가질 수 있는 모순은 방종(extravagance)과 자아-객관화(self-objectification) 그리고 속물근성(snobbery)과 같은 최악의 함정을 피하고 여성에게 오점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의상형태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⁴⁰⁾ 했다. 또한 페미니스트들은 의복에 대한 유일한 정당화(justification)는 기능-실용성에 있으며 이들은 자유의상(liberated dress)을 강조했고 의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린 시절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계급, 부, 성(gender), 나이 등과 같은 외부환경에 의해 제한된다고 했다.

1960년대의 페미니스트들이 다른 여성들과 다르게 옷을 입는다 해도 그들의 스타일은 당시 유행하는 스타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여성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룩은 미니스커트(mini skirts)와 이집트 헤어스타일이었고 히피로브(hippie robe)나 컬(curl)의 유행이 공존할 때인 1960년대 말의 룩은 학생 운동의 반문화적(counter-cultural)인 룩으로 되었다. 페미니스트들은 긴 머리에 회색색깔의 바닥까지 길게 늘어뜨린 옷을 입으며 메이크업은 하지 않는 자연주의 스타일이었다. 즉 중고품 같은 상점스타일과 복고풍(retro-chic)을 선호함에 있어서 페미니즘은 반-패션(anti-fashion)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혁신적이었다 이때는 기성문화에 대항하여 반사회적, 반문화적인 의상을 통해 반항하는 젊은이들의 하위문화 스타일로 형성되면서 패션은 바지류가 더욱 더 유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스타일은 하나의 예로 <사진 5>과 같이 긴 머리의 자연주의 스타일이 90년대에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의 문화와

37) 조선일보, 20세기사상을 찾아서, 1999년 6월 17일 19면

38) 송미숙, “페미니즘미술” 미술평단, 1993(12월) p.14.

39) 정현숙, 양숙희, 하위문화 패션 출처로서의 영국 street style연구, 한국복식학회지42호, p.145.

40) Valerie Steel, 앞의 책 pp.233-234.

함께 다시 유행하게 되었다. <사진 6>은 Yohji Yamamoto의 후드가 달린 점퍼를 매치시킨 지프업 팬츠로 페미니스트들의 자유의상 스타일이었으며 최근 캐주얼 트렌드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사진 5> Gucci, Vogue, (1997.1), p.177



<사진 6> Yohji Yamamoto, Vogue(1998.7), p.78

진보적 페미니스트들은 패션을 탐탁하게 생각하

지 않았기 때문에⁴¹⁾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하이패션을 거부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티-패션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젓고 젊은이들의 패션을 리드해 갔다. 페미니스트 스타일은 자유분방한 스타일을 선호했고 곧 이러한 스타일은 이들만의 유니폼이 아닌 일반적인 패션의 부주제로 이해되었으며 이것들은 상업화되어 패션과 무관하지 않게 되었다.⁴²⁾

의상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생각은 어떤 정해진 규칙이 아닌 개인적인 선호나 선택에 따라서 옷을 입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사진 7>.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따라 자유의상(liberalized dress)은 자신에게 마음에 드는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자유선택의 생각은 포스트모던-페미니즘에 상당히 기여했으며 서구 사회에서 자유선택에 대한 강력한 생각들이 작용되었다.



<사진 7> Dries van Noten, Bazaar(1997.1), p.170

3. 양면가치의 공존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을 사회, 경제적 현상의 반영으로 본 F.Jameson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가 생산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고 본질적인 것

41) Jacqueline Herald, Fashions of a decade: The 1970's, Batsford Ltd London, 1992, p.10.

42) Valerie Steel, 앞의 책 p.237.

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바뀌어 간다고 했다.⁴³⁾ 또한 인간과 자연의 상징적인 요소들이 다원주의적 개념과 질충주의 형태로 받아들였으며 다른 시대, 다른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는 방식이 두드러져 성에 대한 경계는 더욱 무의미하게 되어 가고 있다.

더 이상 이원주의적인 사고가 그로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를 거부하고 모순된 양면성을 인정하면서 각각의 상반된 개념을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즉 가치의 무 경계성, 사고의 무 경계성, 문화의 무 경계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경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패션잡지나 영화 혹은 비디오 등에서 모방되는 패션은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비현실적으로서의 환상과 외부적인 것으로서의 현실성 사이의 흔히 인정되는 반대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패션에서는 패션어블(fashionable)한 여성신체의 이미지 내에서 억압과 자유를 서로 뒤엎히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어 냈다.

페미니스트들은 성별, 성체계에 관하여 양성적인 인간을 구성하는 것은 가장 긍정적인 남성적 성질과 여성적 성질들을 밝혀내고 그것들을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페미니스트들은 성에 대해 프로이트(Freud)의 외디프스 콤플렉스와 거세 콤플렉스에 정면 도전함으로써 여성의 생물학적인 특성이 결코 남성에 뒤지지 않는다는 설득력 있는 이론이 주목 되었다. 즉 이러한 성과 관계된 페미니즘의 사상은 페미니즘 초기부터 현대까지 주요 테마로 다루어져 왔으며 양성화된 인간상을 가장 최고의 목표로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성(性)에 대한 뚜렷한 구분

은 희미해지기 시작하였고 사회적인 여건들은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 페미니즘의 사회적인 확산은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갖게 하고 있다.

의상에서도 이처럼 여성들의 위치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로 접어들면서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자유로운 의상 스타일인 보이쉬(boyish)스타일이 유행하면서였다.⁴⁴⁾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젊은 세대들이 패션을 주도하면서 양성적인 의상 스타일은 본격화되었다.⁴⁵⁾ 1970년대를 풍미했던 Calvin Klein, Karl Lagerfeld, Donna Karan 등과 같은 디자이너들이 바지를 그들의 콜렉션에 팬츠 슈트와 함께 선보임으로써 여성들의 패션은 한층 양성화 되어갔다. 80년대 중반에는 남성과 여성에게 반대되는 룩(look)이 나타났다. 남성다운(masculinity)와 여성스러운(femininity)의 정의가 모호해졌으며 의상스타일은 라이프 스타일(lifestyles)과 열정(aspiration)사이에서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 같았다.⁴⁶⁾ 이렇게 여성과 남성들은 자기 자신이 양성적(bisexuality)의 새로운 형태에 있음을 알았다.⁴⁷⁾

남성과 여성 있어 성에 대한 주체-객체의 이원주의는 해소되고 동시에 강화된다. 주체-객체 반대에 있어 성 체계의 동등하고 기본적인 변화를 이끌기 보다는 남성주의와 여성주의의 패션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변화가 그 안에 남아 있다. 패션에 있어서 현대 여성들은 자기를 반영하는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 여성이 독립적으로 묘사될수록 더욱더 여성은 남성특의 객체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그 양면성과 모호함이 패션에 주된 환상을 통해 의상에서는 유니섹스 룩(unisex look),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

43)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앞의 책, p.211.

44) Elizabeth Rouse, *Understanding Fashion*, BSP Professional Books, 1989, p.217.

45) 문진, "20세기 후반의 Anti-Fashion 연구", 숙명여대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50.

46) Elizabeth Rouse, 앞의 책, p.238.

47) Leslie W. Rabine, 앞의 논문, p.59.

look), 보더리스 패션(borderless fashion)등으로 표현
되어지며 1990년대를 장식해 가고 있다.

이러한 패션은 여성의 가냘픈 부분과 남성의 거친
부분을 잘라 내고 상호 의상교환(cross-dressing)하
여 남녀를 같은 위치에 세워 인간성을 강조한 패션
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8>은 Issey Miyake'98
F/W Mens Collection에서 패션의 트렌드로 받아들
여졌으며 성의 구분이 불분명한 남성복과 여성복의
아이템이 선정되기도 했다. 즉 스타일에서 상반된
두 가지의 개념이 매치 되어 정형화된 옷의 개념 자
체를 거부하는 양상을 띤다.



<사진 8> Issey Miyake, 98 F/W Menswear Collection

또 다른 형태는 성과 관련된 재질과 스타일의 미
묘한 혼합이다. 다시 말해 디자이너들이 같은 의상
내에서 그들의 남성의 Collection과 여성의 Collection
에서 일부를 잘라내어 남성의 의상에 satin, lace,등이
나타나는 것이다.⁴⁸⁾ <사진 9>는 Jean Paul Gaultier
'98 F/W Haute Couture Collection 작품으로 여성
의 전유물로서의 veil이 남성에게도 사용됨으로써
고정화된 성의 개념을 초월하며, 디자인도 남성의
권력과 위엄의 상징물로 표현되는 남성슈트의 정장
이 아닌 니트스웨터와 타이트한 팬츠로 양성적인 면
모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10>은 Kenzo'98 Mens

S/S Collection으로 남성적인 재킷과는 상반되는 하
늘하늘한 롱스커트의 형태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Kenzo는 이번 Collectiond에서 남성복에
스커트 입히기를 다양하게 시도했다.



<사진 9>Jean Paul Gaultier,
98 F/W Haute Couture collection



<사진 10> Kenzo, 98. S/S Men Collection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의 문화가 하나의 고정화된
개념을 뛰어넘어 여성과 남성의 고정화된 성개념의
벽을 허무는 것이고 남성과 여성의 내적, 외적의 통
일체를 형성하여 양성화를 꾀하는 것이라 볼때 포

48) Toronto life Fashion, Twin sets, 1996. 3, p.60.

스트모던-페미니즘 하에 패션은 다양성과 공존하면서 서로 상반된 개념을 하나의 스타일에 믹스(mix)시켜 성의 고정개념을 초월한 양성성(兩性性)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4. 성의 개방적 사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인간의 성향을 양성애 적인 것으로 보았고 18세기 초의 런던의 몰리 하우스(Molly house)를 중심으로 동성연애자들의 여장 무도회가 있었으며 여성의 몸짓과 말투를 흉내내기도 했다.⁴⁹⁾ 이러한 기록은 동성애에 대한 관심과 행동이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귀족 중심의 사회가 사라지고 산업사회가 등장하면서 관료적 정치는 보편적인 가족 질서를 위배하는 성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으며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을 구분하고 경계를 넘는 것을 금기시 해왔다. 그러나 서구사회의 사회적 변화와 페미니즘 운동, 하위문화의 대두 등 확산에 힘입어 동성애자 공동체의 수립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급진적 페미니즘의 분파로 레즈비안-페미니즘(lesbian-feminism)은 가부장제의 중심으로의 이성애 제도와 이성애 이데올로기 모두를 공격하는데 그들은 관습적 이성애 관계에서 해방되고 사회적 변화와 성역할 구성에 대해 급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다.

페미니즘과 레즈비안리즘(lesbianism)이 공유하는 점은 여성공동체의 승인과 각각의 여성이 다른 여성을 좋아하고 애정을 느끼고 사랑할 능력을 현실화시키고 싶어하는 이유이며 남성보다 여성과의 우의를 굳건한 관계로 강조하는 것과 관련된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레즈비안리즘을 전적으로 개인적 결정 이상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레즈비안리즘을 가부장제의 성활동에 대한 내적 거부와 외적 신호로 생각한다. 또한 이성애자들은 이성애

의 성적관계로 본질, 정의 본성이 남자 우선이기 때문에 남성의 우월성의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 기초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레즈비안리즘은 남성이 정의 내린 모든 체제에 혁명적인 거부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⁵⁰⁾

Lynda M. Glennon은 여성과 이원론(Women and Dualism)을 통해 양극주의를 설명하면서 모권제에 관한 초기이론으로 돌아가 광범위한 자유와 평등의 기초이며 강렬한 사랑, 동정, 평화주의, 부드러움, 평등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이며 여성의 본성은 아름다움에 있고 그 성은 원초적인 힘과 결합되어 풍요로우며 신비스러우며 오히려 남성은 여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사회적 권력을 줌으로써 자연적인 열등성을 보상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론들은 급진적 페미니즘의 여성공동체의 승인이라는 점에서 일치를 보며 현재 세계 곳곳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동성간의 사랑을 법적으로 어떻게 받아 들이나 하는 문제를 보다 심도 깊게 다루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가장 적극적으로 프랑스에서 법제화하고 있으며 국회의 의결수의 반이법적인 동성애의 인정에 손을 들어 주고 있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복식을 통해 나타내는 성의 문제는 전적으로 자신의 성(gender)을 버린다는 것은 아니다. 여성이 남성복을 채택하여 불공평한 사회에 도전적인 의미가 부여되면서부터 여성복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남성모드의 바지착용으로부터 재킷까지 모두 전부를 선택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성이 남성 주도적인 사회에 도전하기 시작한 이래 백년 동안의 패션은 남성복의 모양새를 닮아 가는 방향으로 바뀌어 갔다.

여기에 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은 여성적이고 장식적인 것은 무엇이든 열등한 것으로 분류하였던 가치 체제에 대해 반발하고, 주목받지

49) 이정후·양숙희, “크로스 드레싱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제35호, p.116.

50) Charlotte Bunch, “Lesbians in Revolt”, in Woman and Values, Marilyn Pearsall, ed., Wadsworth, 1986, p.131.

못했던 대상들에게 탐구하면서 여성들을 타자로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그들의 가치를 주장하게 되었고 사회는 이들의 담론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⁵¹⁾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변화는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지난 80년대에 이래로 가장 중요한 두개의 문화 이념으로 부각시켰다.⁵²⁾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의 타자성의 예찬론⁵³⁾에 의해 성은 더욱더 개방화되었고 성에 대한 개방과 접촉이 그 동안 억압되었던 성적 표현의 욕구를 분출하여 패션 이미지에 과도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노출이 심한 옷에서부터 성적자극을 주는 디자인까지 표현력은 극대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남녀 이질론의 강조는 80년대 이후 여성이 주체가 된 여성중심적 사고로써 남녀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가치있는 것으로 정당화하면서 의상에서 여성성의 장점을 도입한 의상을 착용하였다.

<사진 11>은 Gucci' 99 S/S Mens Collection으로



<사진 11> Gucci, 99 S/S Menswear Collection

페일핑크와 쇼킹핑크까지 다양한 핑크의 바리에이션과 꽃무늬 셔츠 등을 선보이고 있다. 핑크와 보라를 남성이 착용하면 동성애자임을 표명하는 색으로 간주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착용이 급기시 되어왔던 색이다. <사진 12>는 Christian Dior의 작품으로 결혼예복의 디자인으로 동성애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Collection의 무대는 동성애자들을 의식한 성에 대한 개방화라 할 수 있겠다.



<사진 12> Christian Dior

<사진 13>는 Antonio Berardi의 환히 비치는 씨스루(see-through) 드레스로 털실로 꽃을 수놓아 여성적인 인체의 미와 표현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의상은 과거의 여성들의 패션의 특성은 남성에게 의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인 억압이었다면, 최근에 여성들의 신체적 강조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고 있다. 즉 신체가 노출된 의상은 급진적 페미니즘이 표방하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심리적 특성 그리고 생리적 기능이 남성보다 결코 열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는 자신감 있는 표현으로도 유

51) 정홍숙, "Post-modernism 복식의 복고성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25호, 1995, p.72.

52) Nancy Fraser, Linda J-Nicholson, "Feminism/Postmodernism", 1990, p.19.

53) Beauvoir는 타자성에 대한 예찬을 통해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을 설명하였다. 타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출발된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은 후이센의 제2단계 포스트구조주의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아류로써 구조적 모순과 타자로서의 여성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페미니즘의 새 시대를 열었다. Rosemarie Tong, 앞의 책, p.345.

행하게 된다고 본다.⁵⁴⁾ 따라서 이러한 see-through dress는 90년대에 디자이너들에게 중요한 트렌드가 되었고 커다란 유행을 가져왔었다.



<사진 13> Antonio Berardi, Vogue(1997.11), p.238

<사진 14>는 John Galliano의 Collection으로 고대의 여성정치 및 여신 숭배적인 종교에서 영감을 얻은 듯 무대장치는 모두 고대의 골동품으로 가득했



<사진 14> John Galliano, Vogue(1997.6), p.96

고 여성의 모권제 사회에서의 이상향을 생각하는 양극주의자들의 인간 의식의 거대한 변화와 미래의 의식혁명을 예측하게 하는 무대였다.

이처럼 인간에게의 성은 고대로부터 관심의 대상 이었고 남성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을 여성만의 해방운동으로부터 남녀 공동의 인간 해방, 주체성의 해방 운동으로 전환해 나간다. 이 개혁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인간적 수준으로 존중한다는 가치 중립적 입장의 수립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I. 결 론

패션에서의 주역은 여성이며 따라서 페미니즘과 패션의 연구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패션의 특징인 양성성, 해체성, 다양성, 양면성등이 패션 콜렉션에서 가시화 된 원인을 Post modern-feminism의 문화적 유행의 관점에서 패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남성중심주의의 해체로서 페미니스트들은 양성의 인간을 구성하는 것은 가장 긍정적인 남성적 성질과 여성적 성질을 밝혀내고 그것을 조화시키는 것이라 했다.

또한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이 주도해 온 사회와 문화를 거부하고 여성의 주도하는 사회를 만들 때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생기며 남성적 담론과 지배적 양식을 해체하는 것이라 했다. 따라서 과거의 패션은 남성의 권위와 권력을 표현하였지만 포스트모던-페미니즘하의 남성패션은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틀을 해체하며 오히려 여성적인 특질을 받아들이는 남성중심주의의 해체를 표현하고 있다.

둘째 주류 패션의 거부로 하위문화 스타일이 주류 패션에 등장함으로써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선이

54)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성별과 성활동을 설명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최소화시킨 양성문화의 지향으로부터 여성을 부끄러움으로써가 아닌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표현성을 설명했다. Rosemarie Tong, 앞의 책, p.146.

모호해지는 현상을 낳게되며 한편으로는 하위집단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페미니스트들의 의상은 어떤 정해진 규칙이 아닌 개인적인 선호나 선택에 따라서 옷을 입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반-패션(anti-fashion)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혁신적이었다. 이러한 의상은 기성문화에 대항하여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성(性)의 구별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었다. 이러한 자유의상(liberalized dress)은 자신에게 마음에 드는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자유선택의 생각은 현대 페미니즘에 상당히 기여했으며 서구 사회에서 자유선택에 대한 강력한 생각들이 작용되었다

셋째로는 양면 가치의 공존으로 다원주의적 개념과 절충주의 형태로 받아들였으며 성에 대한 경계는 더욱 무의미하게 되어 가고 있다. 패션에서는 여성의 가냘픈 부분과 남성의 거친 부분을 잘라 내고 상호의상교환(cross-dressing)한 패션이라고 할 수 있다. 스타일에서 상반된 두 가지의 개념이 매치 되어 정형화된 옷의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양상을 띤다. 페미니즘의 목표가 남성과 여성의 내적, 외적의 통일체를 형성하여 양성화를 꾀하는 것이었고 포스트모던-페미니즘 하에 다양성과 공존하면서 패션에서는 서로 상반된 개념을 하나의 스타일에 믹스(mix)시켜 양면성을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넷째로 성의 개방적 사고로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을 구분하고 경계를 넘는 것을 금기시 해왔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본성은 아름다움에 있고 남성은 여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권력을 힘으로써 자연적인 열등성을 보상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의 여성성을 부끄러움으로써가 아니라 자신감있는 표현으로서의 성은 더욱더 개방화되었고 성적 표현의 욕구를 분출하여 패션 이미지에 과도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지나친 노출에서부터 성적자극을 주는 디자인까지 표현력은 극대화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인간에게의 성은 고대로부터 관심의 대상이었고 남성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포스트모던-페미니즘의 소수이며 소외된 타자에 대한 관심은 성에 대한 개방화를 보이며 패션에서도 적극적인 성적 표현과 동성애적인 스타일이 보여지고 있다.

본 연구는 포스트모던-페미니즘과 관련된 문화적인 범주를 현대패션과 연관지어 다름으로서 현대패션의 특성을 이해하고 21세기의 패션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페미니즘과 패션에 관련된 연구가 미술, 영화, 연극, 광고, 문학 등 우리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홍희, 「여성, 그 다름과 힘」, 삼신각, 1994.
- 김민수, 「모던 디자인 비평」, 안그라픽스, 1994.
- 김상환, 「해체론 시대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1996.
-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복식문화, 교문사」, 1996.
- John Storey, (박모 역), 「문화 연구와 문화이론, 현실문화 연구」, 1994.
- 杉本正年(문광희 역), 「동양복장사논고-고대편」, 경춘사, 1995.
- Maggie Humm, [심정순, 염경숙(역)], 「페미니즘이론사전」, 삼신각, 1995.
- Rosemarie Tong, [이소영(역)], 「페미니즘사상」, 한신문화사, 1995.
- Susan Alice Watkins, [이소영(역)], 「페미니즘」, 이두, 1995.
- 이소영, 정정호(공편),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한신문화사, 1992.
- Thalia Gouma-Peterson, [이수경(역)], 「페미니즘 미술의 이해」, 시각과 언어, 1994.
- Whitney Chadwick, [장희숙(역)], 「Feminism」, 열화당, 1994.
- Glennon, Lynda M(이수자역), 「Women and

- Dualism, 이화여대출판부, 1990.
- Valerie. Steel, Paris Fashion: Feminism and Fashion, N.Y, 1988.
 - Evans & Thornton, Women & Fashion, New York Qartet Books, 1989.
 - Elizabeth Rouse, Understanding Fashion, BSP Professional Books, 1989.
 - John Charvet, Feminism, J.M.Dent&Sons Ltd, 1982.
 - J.Anderson Black. Madge Garland& Frances Kennett, A History of Fashion, Ouil New York, 1975.
 - Sheila Rowbotham, Women in movement: Feminism and social action, Routledge N.Y, 1992.
 - Who's afraid of feminism, Women in action, 1995.
 - Jacqueline Herald, Fashions of a decade: The 1970's, Batsford Ltd London, 1992.
 - Leslie W. Rabine, "A Woman Two Bodies: Fashion Magazines, Consumerism & Feminism" edited by Ferris, Benstock On Fashion", New Jersey: Rutgers Univ. Press, 1994.
 - Michele Barrett, "feminism and the definition of culutral politics", Feminism, Culture and Politics, London:Lawrence& Wishart, 1982.
 - Nancy Fraser. Linda J-Nicholson, "Feminism/ Postmodernism", 1990.
 - Charlotte Bunch, "Lesbians in Revolt." in Woman and Values, Marilyn Pearsall, ed., Wadsworth,1986
 - H.Leslien Steeves, "Feminist theories and media studies",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Vol.4, 1987.
 - Lucy Lippard, "Sexual Politics:Art Style", New York, 1976.
 - Robert E. Riegel, "omen's clothes and women's rights", Dartmoth College, 1989.
 - Lynn Schnurnberger, "Let there be Clothes", Workman Publishing, 1991.
 - 김민자, "2차대전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의류학회지 Vol.11, No.2, 1987.
 - 정홍숙, "Post-modernism 복식의 복고성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25호, 1995.
 - 월간미술, 1994. 8월, 1995(2).
 - Bazaar 1997.
 - Collection, 95~99
 - ELLE, 1993~1996
 - Vogue, 1993~1999,